

무등산·지리산 케이블카 '핫 이슈' 재부상

“관광인프라 부족” 최근 잇단 설치 주장 “개발은 곧 파괴” “보존 병행 개발” 맞서

유명 산에 케이블 카를 설치하는 것은 득이나 실이나. 개발론과 보존론이 충돌하는 단골주제인 '케이블카'가 올 봄 지역 주요의제로 떠오르고 있다.

박준영 전남도지사는 지난 5일 '지리산이나 월출산, 무등산 등은 전국적인 명산이지만 산행이 어려워 노약자나 장애인, 어린이는 올라갈 수 없을 뿐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들도 정상 쉽게 찾을 수 없다'며 케이블카 설치 검토를 주문했다. 수년간 논의되던 반대론에 의해 가라앉았던 '케이블카'문제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린 것이다.

또 4·9 총선에 광주 동구 예비후보로 나선 통합민주당 박주선 전 의원이 '철저한 동구 경제 활성화 위해 무등산 일대를 지산유원지, 증심사, 예술의 거리 등 3대 권역으로 나눠 특화된 관광명사로 조성하겠다'는 공약

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해에는 박광태 시장이 주민과의 대화에서 무등산 케이블카 설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으며, 구례군의회 의원들도 "지리산 정상제 도로를 폐쇄하고 케이블 카를 설치해 관광객을 유치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에 광주환경운동연합과 무등산 보호단체협의회는 지난 6일과 7일 잇따라 성명서를 통해 비판했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무등산 도입공원의 경우 이미 이용객이 연 100만 명이 넘어 케이블카가 아니라도 이 용객 허용능력을 초과한 상태"라며 "케이블카는 무등산 정상을 원형으로 복원하려는 기존 정책을 무력화하고 급격한 훼손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도 "무등산의 상징성과 가치를 무시한 관광개발



지리산과 무등산 등 유명 산 개발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라 나오면서 케이블카 설치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 1996년부터 10년간 군부대 및 KT 중계소 이전 등 자연생태복원 사업이 펼쳐진 무등산 일대. /위탁기자 jrwi@kwangju.co.kr

논리로 선거 공약을 제시한 후보는 이를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의견이 분분하다. 호남대 조경학부 오구균 교수는 "케이블 카를 타고 산 정상으로 가야한다는 논리는 60~70년대 사고 방식"이라며 "환경오염은 두말할 필요도 없

고 무등산 등의 케이블카도 적자에 허덕이는데 경제논리도 맞지 않다. 차라리 산 밑에 노약자들이 산책하거나 명상하는 등 녹지 조성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광주대 관광학부 박종찬 교수는 "개발은 무조건 환경파괴라고 정의

할 게 아니라 적절한 개발과 함께 보존이 이뤄진다면 관광산업 등의 부수적인 효과가 발생해 좋은 인프라이 구성 될 것"이라며 "개발 사업을 깊이 있는 연구와 토론을 통해 시민들과 다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필성기자 kps@kwangju.co.kr

대분류	신호	신호	신호
기후변화	●	●	●
생물다양성 및 재생가능 천연자원	●	●	●
물	●	●	●
대기질	●	●	●
폐기물 및 유해화학물질	●	●	●

● 상신호(위험)는 높은 수준의 위험이 있으나 관리능력을 가하여 불 위험
● 중신호(주의)는 중도의 위험이 있으나 관리능력을 가하여 불 위험
● 하신호(안전)는 낮은 수준의 위험이 있으나 관리능력을 가하여 불 위험

2030년 39억명 물부족 고통

전세계 인구 절반 육박... 온실가스도 37% 증가

OECD 환경 전망 보고서

세계 물의 날(3월22일)을 앞두고 세계 각국이 현 정책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오는 2030년 극심한 물 부족에 시달리는 인구가 39억명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와 물 문제에 대한 관심이 절실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최근 '2030년 환경전망보고서'(OECD Environmental Outlook to 2030)를 통해 극심한 물 부족에 시달리는 인구가 2030년에는 모두 39억명으로 전체인구(82억명)의 절반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현재보다 무려 10억 명이 증가할 수 있다.

보고서는 또 "새로운 정책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이 2030년에는 37%, 2050년에는 52% 각각 증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지구 평균온도는 2050년 산업화 전 수준에 비해 1.7~2.4도 상승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폭염, 가뭄, 폭풍, 홍수의 증가를 가져와 주요 인프라와 농작물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28개 환경지표를 교통신호처럼 '청신호' '황신호' '적신호'로 나눠 평가했는데, 온실가스 배출, 생물종 감소, 물부족, 도시 대기질, 유해 폐기물 관리와 운송 등 15개 항목은 상태 악화로 시급한 관심이 필요한 환경문제인

'적신호'로 분류됐다. 적신호 평가를 받은 분야는 새로운 대책이 없을 경우 상당수의 동·식물이 멸종될 수 있고, 대기오염으로 지표면 오존 감소에 따른 조기 사망자수는 4배, 미세먼지 증가로 인한 조기 사망자 수는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고서는 예측했다.

GDP당 온실가스 배출의 감소, 지표수질과 하수처리, 도로교통 오염 등 8개 항목은 여전히 불확실한 과제라는 의미로 '황신호'를 받았다.

관리가 잘 되고 있어 '청신호'를 받은 지표는 OECD 회원국내 산림면적, OECD 회원국의 이산화황과 질산 배출 등 모두 5개였다.

보고서는 이 같은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OECD 환경전망 종합정책'(EO Policy Package)을 제안했다. ▲농업보조금과 관세의 50% 삭감 ▲이산화탄소 t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기오염 규제 강화 ▲공공하수처리율 50% 향상 등이 그 골자다.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 이 정책이 제대로 실행되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를 37%에서 13%로 낮추고, 질산산화물과 황산화물의 배출량도 3분의 1 수준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서는 내다봤다. 정책 실행에 드는 비용은 2030년 세계 GDP 예측치의 1%가 조금 넘는 수준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 /정호식기자 who@kwangju.co.kr

'서해안 살리기' 참여 하세요

태안 기름유출 사고 100일 맞아 참가자 선착순 모집

광주환경운동원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충남 태안 앞바다 기름유출사고 발생 100일을 맞아 '서해안 살리기 국민행진'을 실시한다. 이번 행사는 기름유출 사고로 사라진 꽃게 등의 '자연생태 귀향 기원 모래 퍼포먼스'와 침체된 태안 경제를 살리는 '만원의 기쁨' 태안시장 장보기 프로그램 등으로 진행된다.

행사에 참가하려면 당일 오전 6시까지 광주시청 정문으로 오면 되고, 참가비는 1만5천원이다. 문의는 광주환경운동연합 062-514-2470.

한편 태안군도 오는 13일 오전 10시부터 소원면 의항리에서 공무원과 주민, 자원봉사자 등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방제작업을 겸한 특별행사를 연다. 이날 행사는 100만 자원봉사자에 대한 감사의 편지 낭송과 주민들의 큰절, 방제작업, 희망의 글쓰기, 서해안 회 시식행사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태안군에는 지난해 12월7일 사고 이후 이날까지 군·경·공무원과 자원봉사자 등 모두 157만여 명이 참여해 방제작업을 벌였고 이 가운데 자원봉사자만도 102만여 명이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강필성기자 kps@kwangju.co.kr

22일 세계 물의 날

3월 한달 물사랑 운동

영산강 환경청, 생태 체험·물 관리 세미나 등 행사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세계 물의 날(3월22일)'을 맞아 3월 한 달 동안 각종 기념식과 토론회, 생태체험, 사진 전시회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

특히 올해는 UN이 2015년까지 정한 '생명을 위한 물(Water for Life)'을 주제로, '물-아름다운 생명체(Water is Alive)'를 행사 주제로 정해 생명을 갖고 있는 아름다운 주제로서의 물을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환경청은 오는 19일 오후 2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영산강 수질개선 어디까지 왔나?'를 주제로 물의 날 기념 정책 토론회를 연다. 이날 토론회에는 환경전문가들과 시민단체, 시·도 관계자가 참여한다.

또 21일에는 '영산강-섬진강 수계 지속가능한 물 관리 방안' '제주지역 지하수의 문제점과 대안방안'을 주제로 김대중컨벤션센터와 제주대학교 국제교육관에서 세미나가 열린다.

시민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행사도 계획돼 있다. 20~22일까지는 광주지하철 남광주역에서 영산강-섬진강 사진 공모전에 우수작품으로 선정된 100여 점을 전시할 예정이며, 21일에는 물사랑 그림 그리기 및 생태체험, 영산강 홍보를 위한 자전거 투어, 섬진강 사랑 생태체험 등이 진행된다. 또 21일 오전 10시부터 두 시간 동안 광주시 북구 응전동 응산교 인근

에서 '물의 날 기념식 및 시·도민 실천대회'를 열고 다양한 공연과 함께 정화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22일 오전 10시에는 여수시 시민회관 앞에서 '도심 속 하천의 생태환경 조성'을 위한 시민참여 행사를 개최, 정화활동을 펼 계획이다.

'세계 물의 날'은 인구가 늘어나고 경제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많은 국가에서 물부족 현상이 나타나자 유엔(UN)이 19세7년부터 세계물평화회의, 국제연합 인간환경회의 등을 잇따라 개최하면서 논의되기 시작했다. 이후 UN은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국제연합 환경개발회의의 권고를 받아들여, 1992년 11월 제47차 국제연합총회에서 매년 3월 22일을 '세계 물의 날'로 제정·선포했다. /강필성기자 kps@kwangju.co.kr

대인동삼일부동산
☎(대)223-1140, 5210 헬 011-802-2532
(광주은행 본점 옆, 대인동 소방서 건너편)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들 싸게 사실분

상가 전문소개업체인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광주 시내 전지역 상가중 점포가 잘 형성되어 월세가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이 나오고 앞으로 더욱 좋아질 비전있는 곳으로 1층 점포가 4~5칸 정도에 점포가 여러칸인 상가를 대표적인 것만 골라 들기를 많이 확보하고 있어 일일이 광고하지 못합니다.

사상남께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실 때에는 상가전문 소 개업체인광주에서 오랜전통 있는 저희 부동산에 꼭 한번 방문 하시던 책임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가공인중개사
☎(대)234-8216 헬 011-609-0896
(광주우체국부근)

상가건물 매도
- 금남로 대우빌 대지 231㎡(70평) 5층 20억
- 충장로 대지 208㎡(63평) 4층 18억
- 충장로 대지 165㎡(50평) 4층 23억
- 황금동 대지 1324㎡(400평) 3층 10억
- 광산동 구시원 대지 537㎡(163평) 4층 15억
- 불동동 한대리부근 코너 대지 294㎡(89평) 4억
- 용봉동 3연도로 단층 대지 1,190㎡(360) 8억
- 원산동 대우빌 대지 390㎡(118평) 6층 6억5천만

토지매매
- 은평동 4차선지 2,627㎡(804평) 당 180만
- 은평동 녹지 3,966㎡(1,204평) 294천만
- 월산동 대우빌 부지 1,090㎡(330평) 494천만
- 봉선동 25㎡(7.5평) 2,315㎡(700평) 3.3㎡당 250만
- 도현동 지선지 16,530㎡(500평) 3.3㎡당 75만
- 도산동 전월임대 부지 6,511㎡(200평) 20억
- 인흥동 부지 11,900㎡(3,600평) 3.3㎡당 80만

전월주택
- 청룡동 부지 760㎡(230평) 당 70만
- 금곡동 부지 1,490㎡(450평) 194천만
- 은평동 대지 463㎡(140평) 한옥 1억1천만
- 지산동 녹지 3,640㎡(1,109평) 395천만
- 중앙동 소형지 대지 2,300㎡(700평) 2억
- 화산동 대지 660㎡(200평) 한옥 4천만

입야
- 화산 도곡 관리지역 52,900㎡(1만6천평) 당 8만
- 화산 도곡 105,700㎡(3만2천평) 3억
- 화산 도곡 3,200㎡(9,600평) 3.3㎡당 6만
- 화산 남면 관리지역 165,000㎡(5만평) 5억
- 화산 한전 218,000㎡(6만5천평) 3.3㎡당 6천
- 화산 이장 53,000㎡(1만6천평) 9천만

기타부동산
- 조대 대우빌 대지 760㎡(230평) 8억
- 금곡동 중일@ 대우빌 330㎡(1,000평) 400만
- 화산 계곡동 6,800㎡(2만평) 8천만
- 보성동 지선지 30,000㎡(9천평) 1억3천만

상무랜드공인중개사
☎(대)383-5221 헬 011-609-5221
(구상무대 정문)

빌딩
- 대지500 건물1,300 한남병원역
- 차평동 매체가 75억
- 보성동 36억 월세3,100만원 (자영업고상점) 용지2억 매가180억 (토지, 고층기법)
- 보성동광의 빌 1,700만원 (신축) 용지9억 매가 34억
- 보성동20억 월세4,000만원 용지18억 매가 185억
- 보성동역 일세2,000만원 용지7억 매가 27억

땅
(상무지구)
- 2,800㎡(850평) 3.3㎡당 1,200만원
- 727㎡(220평) 3.3㎡당 1,200만원(유류탱크)
- 450㎡(136평) 3.3㎡당 850만원(유류탱크)
- 330㎡(100평) 3.3㎡당 900만원(시원입구)
- 3,593㎡(1,067)3.3㎡당3000만원 (7단지)
- (양촌동)800세대(보통)입구777㎡(266평) 3.3㎡당 350만원(수원역)
- (동진동)2세대73,000㎡(2만2천평) 농장 3.3㎡당 11만(농촌도시권)
- (양촌동)대지12만(155평)20M 도로정 3.3㎡당 265만원
- (정동동) 3,760㎡(1,140평)정동4000원

병원·호텔매매·사우나
- 4,300㎡(1,300평)3.3㎡당 350만원 (동원동)고층빌딩
- 근린시설(병원, 학원, 목욕탕)전면 1,652㎡(500평) 매가 700만원 (하남지구)
- 1,200㎡(360평)3.3㎡당 350만원 (병원, 학원, 식당)역대(금호지구)
- 대지528㎡(160평)3.3㎡당 470만원 (주공0파트정문 앞)(수원지구)

모텔·호텔매매·사우나
- 객실35개 용지20억 매가28억
- 객실33개 용지9억 매가12억
- 대지500/건물1,900 사우나 매가19억

★24시간 전화 물권 접수함.다★

대지공인중개사
(공정 책임중개)
☎ 010-8572-8985

『담양군 대덕면 입야』
18032㎡ 매 3.3㎡당 4만3천원 관리지역 2차선도로 150m 집(공장, 물류창고, 사육복합시설)적합

『담양군 황평면 입야』
36023㎡ 매 3.3㎡당 2만6천원 2차선도로 85m 집

『흑석동 자연녹지 집중지』
9300㎡ 매 3.3㎡당 180만원 (물류창고적합)

『임동 주가지역 8차선도로변 주공아파트 정문근-편』
대지900㎡ 매 7억5천만원 (전사판매장, 물류창고, 사육 적합)

『충효동 35m대로변』
대지920㎡ 한정식식당2층 건물있음 매가95천만원 (고급식당, 사육, 물류창고, 전사판매장, 컨테이너적합)

『신안동 상업지』
대지339㎡ 조식식 건물있음 매가2억5천만원
부동산 중개업 등록번호 1명 구함

A+ 에이플러스공인중개사
시장흐름을 예측하는 전문가들의 자선선별명가
광주 전남권 토지·건물 구함
☎(대)062-973-9174, 016-757-8800

수완택지지구 200평
청단지구 500평 200평
건물 28억 (보4억 월2000만원)
광복연습장(광주) 주유소 부지
공장부지 (담양 2천~8천평)

분양·임대

침단중앙메디칼센터 (2008년 2월 준공)

53평	편의시설
1층 58평	
40평	

2~6층 각 166평 병의원

7층 70평 모든업종가능

건물 28억

• 광주·장성권 토지 건물 •
투자유망물건 다량 보유(0천만원~00억원)
062)973-9177, 010-3625-1362
침단지구 국민은행 주차장으로 오십시오

한일지도판매(주)
☎(여)529-1408 상담 010-2466-1408 (전)527-6310, 011-9433-6310
(광주시 동구 지산동 373-8 법원정문앞)

2008최신 합본(광주·전남·전북·전라·충청·경상·강원·제주) 지번도 책 판매중

안녕하십니까? 한일지도(주) 20주년을 맞이하여 합본책을 제작하여 판매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제작한 합본책은?

1. **광주** 광역시 전지역 재개발·도시계획·용도지역·하남4공단 계획수용 최신지적, 신규APT 수속
2. **전남** 나주시 전지역, 도시계획, 용도지역, 그린벨트 1·2차 해제수속, 나주승합동 스포츠타운 수속, 송일택기개발 지구기반수속
3. **전북** 장성군 전지역, 도시계획, 용도지역, 그린벨트 1차수속, 최신지적 수속
4. **전라** 장성군 전지역, 도시계획, 용도지역 개발예정인 장성남면도 그린벨트 1차, 2차 해제수속, 나노지 지점, 배후도 수속
5. **충청** 단양군 전지역, 도시계획, 용도지역, 그린벨트 1차, 2차 수속, 최신지적 수속, 보종지구 수속
6. **경상** 함평군 전지역, 도시계획, 용도지역 그린벨트 1차 해제 수속, 최신지적 수속

※현재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정성당·합본·나주책은 그린벨트 해제권 없었습니다. 이와 다른 부분들이 있으나 사연으로는 다 알릴수가 없어 공권신 부분이다 이것은 본은 전하로 문의 바랍니다.

※판매시 한일지도와 전화 상담이신분에 한하여 힘을 달리기 위해 50%세금을 단행하였으니 좋은 기회를 이용하세요.

【영업사원 0명 모집】